

보편지향 기도

+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이 땅에 생명과 사랑의 문화가 건설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기도합니다.

1. 태어날 아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임신된 아기들은 모두 주님의 귀한 선물이오니 우리 가정과 사회가 태어날 아이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귀한 생명을 정성으로 보듬어 당신의 창조사업을 이어가게 하소서.

2. 낙태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존귀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태아들을 위하여 비오니, 우리 사회가 당신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낙태 없는 세상’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44년 전 제정되어 태아의 생명을 침해해 온 모자보건법 낙태허용조항이 하루 속히 삭제되게 하여 주소서.

3. 청소년과 미혼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꿈 많은 청소년들과 낙태의 유혹을 물리치고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심한 미혼모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청소년들이 밝고 맑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우리 사회가 미혼부 법적 책임 부과를 통하여 미혼모의 아픔과 어려움을 더욱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청소년 생명교육과 미혼모 지원을 위해 시작한 새 생명 프로젝트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4. 생명 수호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생명 수호를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여 생명의 문화를 일구어 감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 믿고 청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어여삐 들어 허락하시는 주님, 저희가 마음을 모아 바치는 이 기도를 너그러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봉헌성가

가톨릭성가 219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 1 주여 내 몸과 내 마음 기쁨과 설움 다 바치오니
네 아들 예수 희생보사 우리 제물을 받으옵소서 우리 제물을 받으옵소서
- 2 이 잠시 지날 세상 후 주를 영원히 모시오리라
우리게 생명 주시고자 고통을 즐겨 받으시었네 고통을 즐겨 받으시었네

성체성가

가톨릭성가 166번 〈생명의 양식〉

- 1 생명의 양식인 나에게로 오너라 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으며 내 안에 살게 되리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 2 이 빵은 나의 몸 너희에게 주노라 내 몸 먹는 자들은 죽음 당하지 않고 영원 생명 얻으리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 3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살게 되리 끝없는 행복 속에 평화를 누리리라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 4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로다 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더라도 영원히 살리라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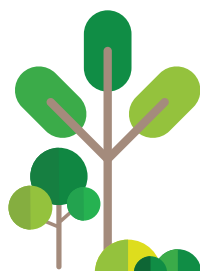
※ 이어지는 성체성가는 가톨릭성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 174번 〈사랑의 신비여〉, 496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입니다.

퇴장성가

가톨릭성가 34번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 1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도다 주의 참된 평화여 신성한 감격이여
- 2 주님 안에 영원히 나의 삶을 드리니 나의 모든 괴로움 멀리 사라지도다 항상 주께 바라면 근심 걱정 없으리
- 3 주님과의 사랑을 꿈을 자 그 누군가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되도다 주님 안에 영원히 평화 누리게 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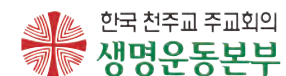
후렴] 주는 나의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 대행진 전야 행사

2017. 6. 16 (Fri) 16:00~21:00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코스트홀

주최



연주

플레이어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후원

가톨릭신문사 | 하상출판사 |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수원교구 분당 성요한 성당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윤광열(요한), 총무 박홍숙(안토니오), 경제인 회장 신종인(베드로)

| 행사 일정 |



01

제1부 | 생명의토크콘서트

시 간	2017년 6월 16일(금) 오후 4시 ~ 5시 30분
장 소	명동성당 코스트홀
주 제	생명을 택하여라!
발 표	황창연 베네딕토 신부(수원교구)



02

제2부 | 생명대행진 전야미사



시 간	2017년 6월 16일(금) 오후 8시 ~9시
장 소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전례명	제6차 생명대행진 전야미사
집 전	이성효 주교(생명운동본부 위원장) 외 사제단

| 제6차 생명대행진 전야미사 |



입당성가

가톨릭성가 44번 <평화를 주옵소서>

- 1 날 어여삐 여기소서 참 생명을 주시는 주 나 주님을 민사오며 주님께 나아가리
- 2 날 이끌어 주옵소서 내 가는 길 힘드오니 내 주님의 크신 힘에 나 굳게 의탁하리
- 3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내 주님을 섬길 때에 내 주님의 은총 안에 참 행복 누리리라

후렴 평화 평화 평화를 주옵소서 그 영원한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제1독서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4,7-15

형제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습시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 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6(115),10-11.15-16.17-18(© 17ㄱ 참조)

- ◎ 주님,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나이다.
-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문득 놀라 나는 말하였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

복음환호송

필리 2,15.16 참조

-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 알렐루야.



복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27-3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